

박정훈

뿌린 대로 거둔 열매,
환경의 역습담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학역

《책으로 만든 환경의 역습》낸 SBS 교양제작부장 박정훈 씨

〈육체와의 전쟁〉 〈생명의 기적〉 〈토요스페셜 아름다운 성〉 〈잘 먹고 잘사는 법〉. 2001년과 2002년, SBS에서 방영된 유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쉽게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교양 프로그램이지만 이들 만큼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올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3부작 구성으로 방영된 〈환경의 역습〉도 예외가 아니다. 모두 박정훈(43) 씨가 연출을 맡아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인간의 몸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왔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자체도 계기가 됐어요. 임신이 되고 출산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며 느낀 것을 담아 〈생명의 기적〉을 제작했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법〉에선 ‘먹고 사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전혀 의외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두 프로그램을 통해 수중분만 과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출산법을 자세히 소개해 ‘인간적’ 요소를 배려하는 출산문화를 주장했다. ‘먹기’ 위한 밥상에서 ‘생명’과 ‘미래’를 위한 밥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잘못된 식문화를 나무랐다.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할 때마다 확신을 갖고 시작한다”는 얘기다. 평균 제작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제작비 규모도 엄청나지만 그에 비할 바 없는 노고와 열정은 현실진단에만 그쳤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간의 몸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환경의 역습〉도 그런 결과물중 하나였다. 인간이 파괴해 온 환경이 이제는 역습을 시도한다. 《책으로 만든 환경의 역습》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책으로 다시 엮은 《잘먹고 잘사는 법》에 이은 두 번째 저작이다. 몸사리지 않은 취재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프로그램은 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150분 안에 영상으로 모든 걸 전달해야 하는 매체기 때문에 그만큼 절제될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정보를 빼야 할 때도 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자의 이데올로기나 사상까지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됐어요.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지 못했거든요. 책을 통해서만 자기생각을 정리하고 효과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의 생각을 펼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을 때 비로소 보람을 느끼죠.”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한번 다루고 싶던 중 생각한 것이 ‘공기’였다. 보이지 않아 쉽게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런 공기에 의해 건강이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했다. 3년 전, 박 씨 가족은 새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에 이상이 생겼다. ‘새집증후군’ 임을 미처 몰랐던 그땐, 단순 가려움증 정도로 생각했다. 프로그램 방영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제보가 줄을 이었다.

그는 유럽 8개국을 다니며 환경, 특히 실내공기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을 찾아 다녔다. 충분한 사전조사와 지식은 필수였다. 무엇보다 당시엔 들춰지지 않았던 실내공기의 폐해를 고발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청정 공기의 중요성 주목... ‘새집증후군’ 등 계몽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신축주택 붐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집증후군’이란 용어도 일본에서 만든 말이에요. 미국은 그보다 앞선 1980년대부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산업화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죠. 취재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다 기억에 남아요”

특히 증상이 심해져 ‘화학물질과민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겐 아직 생소했다. 방충이 나간 다음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제보로 국내에도 그 숫자가 적지 않음을 알게됐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거와 생활환경의 수준이 낮다”고 안타까워 했다. 복잡한 도로, 기준치를 초과한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농도, 물과 토양의 오염 등 현실은 환경파괴를 너무 방치했다.

유럽 국가들은 기준치를 정해놓고 일정 수준 이하로 오염

정도가 떨어질 때까지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완벽한 장치를 마련했다. 새로 지은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많이 뛰놀아서만은 아니다. 지난 5월부터 학교와 새집의 공기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하는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 시설에만 그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원래 다중이용 시설에는 공기질에 관한 법이 있어요. 백화점, 지하철역 등이 적용되지만 주거공간은 그 범주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포함시켜 2006년부터 법이 다시 제정된다고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늘 고민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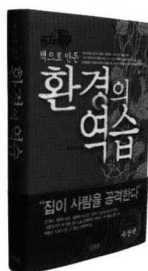
방영후엔 일부 사례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항의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알레르기나 천식, 아토피 기질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반응이 급방 나타날 뿐이지 그밖의 모든 사람들도 해당되는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책 저술, 프로그램 통해 ‘환경보존’ 앞장

현재 그는 SBS 교양제작부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세븐 데이즈〉를 담당하고 있다. 습도 조절을 잘한 탓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다. 흠뻑 젖은 수건을 널어 두고 자다보니 피부 건조와 불면의 걱정이 없다. 그리고 보니 그는 유난히 하얗고 뽀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저는 환경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기보다 도시인으로서 파괴해 온 사람이었죠. 앞으로 환경이 오염되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환경지양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은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섭리’에 충실한 삶을 강조한다. 이를 설득력 있게 전하는 데에 프로그램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보통사람’으로서 겪은 일을 ‘보통사람’들이 공감 할 이야기로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했다. 환경은 예민하고 구체적이지만 작게나마 생각에 변화를 주고 공유하는 인식만으로도 반응하고 소생한다. “기본’과 ‘섭리’를 벗어난 삶. 이를 되돌리고 되찾는 것만이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대안”이란 게 박 씨의 생각이다.  취재 홍이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환경의 역습》 박정훈 지음 | 김영사 | 328쪽 | 값 12,900원